

# ‘인간의 몸을 한 신’의 정신적 미로

러시아 무용가 니진스키의 수첩일기 발간·외



동성에 편력 등 무삭제 수첩일기 발간과 화제를 몰고온 러시아의 전설적 무용가 니진스키

“나는 인간의 몸을 한 신이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무용가 바슬라브 니진스키(1890~1950)가 이렇게 휘갈기듯 써놓은 수첩일기의 무삭제판 「노트들(Cahiers)」(악트 쉬드귀)이 러시아계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뒤메 르보브스키에 의해 최근 프랑스 파리에 서 번역출간돼 무용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이 책은 니진스키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기 직전인 1919년 1월 19일부터 7주간에 걸쳐 쓴 네권의 수첩일기를 펴낸 것으로, 이제까지 한번도 완전하게 공개된 적이 없어 관련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니진스키가 이 수첩일기를 쓰던 당시 나이는 29세. 「장미의 정령」 「봄의 제전」 등의 작

품으로 엄청난 성공을 얻기는 했으나 이미 정신적으로 심각한 분열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수첩에 미친듯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정신과의사는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고 그를 정신병원에 수감했다.

1936년 니진스키의 아내 로몰라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동성에 편력 등 공개하기 어려운 일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대폭 삭제해 영문판으로 출간했다. 53년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가 재출간했으나 삭제판이긴 마찬가지였다. 로몰라는 78년 임종을 앞두고 두 딸에게 공개 불가 유언을 남겼고, 이로 인해 수첩은 학자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됐다.

따라서 수첩이 이번에 완전한 모습으로 공개되기까지는 르보브스키의 남다른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 출판계 및 학계의 평가이다. 그가 니진스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4년 파리에 정착한 뒤 53년판 「노트들」을 읽게 되면서부터. 불안정한 형태로나마 니진스키의 최후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그는 이 책을 각색해 연극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93년 아비뇽 연극제에 참가한 르보브스키는 니진스키 전기작가인 피터 오스윌드로부터 수첩의 오리지널을 미국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 니진스키의 딸 타마라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후 르보브스키는 그야말로 삼고초려 끝에 유족의 허락을 받는데 성공, 책으로 출간했다.

니진스키는 수첩에 “나는 모두를 사랑한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절망적으로 썼는가 하면 “나는 신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부다(Budda)다” “나는 신과 결혼했다”며 자기도취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또 1차대전 발발과 관련해 영국 로이드 조지 수상을 전쟁광으로 비난한 데 비해 미국 월슨대통령과 클레망소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주의자로 평가했다.

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발레 루스’의 단장이었던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와의 관계. 그는 19세에 불과했던 니진스키를 발레 루스 무용단의 주역으로 발탁, 세계적인 무용가로 키워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니진스키가 동료 발레리나 로몰라와 결혼한 데 배신감을 느끼고 결별을 선언, 결국 니진스키를 무용계에서 고립시키고 몰락하게 만들기도 했다. 디아길레프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는 두사람이 동성에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돼 왔었고, 수첩일기 출간과 함께 이것은 사실로 증명됐다.

니진스키는 19세때부터 자신이 디아길레프의 연인노릇을 했으며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여성과의 사랑은 끔찍한 것이란 그의 말도 믿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디아길레프와 사랑을 나누고 방에서 나오는 길로 파리 뒷골목 사창가를 돌아다닌 적도 많았다”고 고백했다. 디아길레프가 무용단의 안무가 레오니드 마신을 새 연인으로 삼은 데 격렬한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다는 것.

그는 “사람들이 나를 요양소로 보내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라며 주변의 몰이해에 경멸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1919년 3월4일 취리히의 한 정신병원에 진단받으러 떠나기 전에 쓴 마지막 수첩일기에는 “아내 로몰라와 딸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같다는 말을 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간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란 뜻을 문장으로 끝낸다. 니진스키는 취리히에 도착한 뒤 곧 병원에 입원했고, 오랜 세월 정신적 미로 속을 헤매다 50년 런던에서 사망했다.

니진스키의 딸 타마라는 최근 「뉴욕타임스」지와 인터뷰에서 수첩을 공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위대한 댄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그 분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있는 그대로 봐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트들」의 영역판은 96년 미국 파라, 스트라우스·지루 출판사에 의해 출간될 예정이다.

## 훗문단에 떠오르는 여성작가의 신작

「소유」로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된 작가 A. S. 바이야트(59)가 영국문단 최고의 여성작가로 각광받고 있다. 마틴 에이미스와의 불화로 신문잡지 기사에 오르내리기도 했던 그는 최근 단편을 속속 발표하면서 문학성이 만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2년작 「천사와 벌레들」이 영화화돼 올 가을 개봉될 예정이어서 대중과의 거리감도 한층 좁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리스 머독의 뒤를 잇는 ‘영국문학의 그랜드 데임(Grand Dame)’으로 불리는 바이야트의 본명은 안토니아 수전 드레이블. 36년 판사 집안의 네 딸 중 맏이로 태어나 캠브리지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당시 그의 동급생 중에는 훗날 미국최고 여성시인으로 꼽히는 실비아 플라이스도 있었다. 60년 동생 마가렛 드레이블이 소설가로 데뷔한데 비해 그는 아이언 바이야트와 결혼, 시골에서 두 자녀를 낳아 기르며 작가의 꿈을 접었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바이야트는 아이들이 잠든 뒤 틈틈이 쓴 「태양의 그늘」로 1964년 문단에 발을 들여놓았다. 십대 소녀와 유명 작가 아버지간의 관

계를 그린 이 작품은 바이야트 문학의 특징인 지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는 런던대학에서 영미문학을 강의하며 「자유 의 단 계들: 아리스 머독 연구」를 펴냈고, 72년 아 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죽은 소년들」이란 감동적인 시를 발표해 동정과 격찬을 한몸에 받았다.

바이야트에게 국제적 명성을 가져다 준 소설은 1990년 부커상 수상작 「소유」. 빅토리아 시대 문학을 전공하는 남녀 학자가 각자 연구 주제인 작가들의 행적을 뒤쫓다가 사랑에 빠 지는 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문학이란 공통의 끈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애정관, 인간의 근본적인 열정을 풀어내고 있다. 「소유」의 성공으로 바이야트는 “탁월하지만 대중성은 부족한 마이너 작가”란 딱지를 떼고 베스트셀러 메이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진지하고 무게있는 분위기로 정평난 바이야트의 작품세계가 과연 독자들로부터 얼마나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가에 영국문학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평론가들의 분석이다.

## 영국 출판계 “돈이나, 문학성이나” 논쟁

영국 출판계에 때마침 금전 시비가 일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 마틴 에이미스(45)가 최근작 「인포메이션」을 출간하면서 무려 50만 파운드(약 6억원)의 선인세를 출판사에 요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인기작가에게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미국과 달리 아직도 보수적인 분위기인 영국 출판계에서는 점잖은 소설가가 돈쟁이기에 밟히고 나섰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동료 작가들까지 에이미스를 천박한 인물로 맹렬히 비난해 파문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마틴 에이미스는 「머니」「런던 필드」「시간의 화살」 등으로 유명한 중견작가. 영국 최고의 현대소설가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킹슬리 에이미스의 아들이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미문단과 언론계에서는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화제거리가 될만큼 대중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다.

에이미스가 고액 선인세 문제로 화제를 뿌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그가 「인포메이션」의 출간 대가로 50만 파운드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출판계에서는 경악을 나타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문학과 상업성은 별개”란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프리 아처, 존 그리샴, 바바라 테일러 브래드포드 등 일부 인기 상업소설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문학 작가에게 50만 파운드의 선인세를 지불한 예가 없었다.

에이미스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머니」와 「런던 필드」의 판매권수는 합쳐서 불과 27만권(4만권은 하드백). 「인포메이션」으로 출판사가 50만 파운드의 선인세를 건지기 위해선 최소한 두배 이상은 팔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에이미스는 오랜 친구이자 에이전트인 조너선 케이프를 뉴욕출신 앤드류 와일리로 교체하면서까지 여러 출판사들과 줄다리기를 계속, 결국 최근 하퍼 콜린스사와 50만 파운드엔 조금 못미치나 영국 문학사상 최고액수로 출판계약을 맺었다.

독자들은 에이미스가 훌륭한 소설가이긴 하지만 돈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란 반응. 특히 여성작가 A. S. 바이야트 등 동료작가들도 공개적으로 그를 “자만심에 찬 남자”로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최근 이혼하면서 위자료때문에 다급해진 모양이란 인신공격성 발언도 적지 않다. 출판계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 다른 작가들로부터 인세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포메이션」은 3월경 영국, 5월경 미국에서 출간된다.

## 어린이 위한 라이프치히의 문학행사

독일에서는 연방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연중 각 주와 도시별로 여러 기관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규모의 도서전과 각종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된다.

해마다 문학주간 기간동안 도서전을 포함한 다채롭고 독특한 방식의 문화행사로 주목받고 있는 라이프치히도 바로 그러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어린이·청소년·세계’라는 모토와 함께 기획된 지난해 라이프치히 문학주간 행사는 이를 주관한 라이프치히 문화부와 라이프치히 문학협회 및 독일지역 출판사들의 독서장려를 위한 참신한 기획프로그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기대 이상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10일 동안의 행사기간 중에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문학 작가 130명이 200여 가지에 달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라이프치히시에 위치해 있는 라이프 출판사(Leiv-Verlag)에서 주관한 어린이



책의 여왕으로 뽑힌 크리스타 코직. 라이프 출판사에서 주관한 독서축제에서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ngelsdorff) 악단의 연주는 보다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자아내주었다. 또한 나치정권 시대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중년 작가들은 죄의식을 마비시키는 나치주의 선동에 이끌려 대중심리에 휩쓸렸던 경험을 고백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나치주의’에 대한 올바른 자각을



축제(Kinderfest)에서 ‘책의 여왕’으로 뽑힌 국민학교 3학년짜리 꼬마에게는 피터팬과 피노키오, 엘리스 그리고 아기곰 푸우 등이 모두 그녀의 친구들이다. 또한 동화 및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중인 크리스타 코직(christa Kozik)은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뽑힌 또다른 ‘책의 여왕’이 되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국민학교에서 상영한 코직의 동화 ‘마법에 걸린 도둑’을 보려고 물려든 극성스런 꼬마팬들의 등쌀에 하루종일 즐거운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다.

마라톤처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35개 국민학교를 순회하며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독일작가들 외에도 러시아와 영국, 터키 등지 출신의 낯선 타국 작가들도 참가해 이방세계의 문화에서 맛볼 수 있는 또다른 매력으로 어린이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인쇄된 문자와 아름다운 그림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신비한 동양세계의 낯선 이미지는 그들을 통해 실감을 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로만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파괴와 죽음의 이미지로 점철된 나치시대의 암울했던 역사에 대한 언급도 바로 그중의 하나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재즈음악 연주가인 망엘스도르프(Ma-

당부하기도 했다. 그밖에 그 지역의 시립도서관 및 공공회의장에서는 문학작품 속에서 거론된 각종 청소년문제들, 영웅시되는 남성상에 반해 배경 속으로 묻혀버리고 마는 여성상의 상실 등 갖가지 주제로 토론의 열기가 이어졌다.

어린이들을 위한 낮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오후에는 시당국의 배려로 준비된 적포도주와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구연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시간에는 회교국 출신의 동화작가이자 영화제작자인 사데크 케비르(Saddek Kebir)가 짐짓 주술적인 동작을 섞어 구연한 풍자적인 여운의 이방세계 동화로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의 주관을 함께 맡았던 작센지방의 비데커클럽 의장 로스비타 구네르트씨는, 무엇보다도 시당국을 비롯하여 개개의 출판사들과 라이프치히 문학 협회 등이 아동 및 청소년문학의 진흥을 위한 건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음을 성과로 들었다. 이는 또한 자극적인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위기에 빠진 아동문학’론을 주장하는 회의론자들에게 반론을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